

새 천년 대학사회의 과제와 역할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새 천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0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남겨두고, 21세기 새 천년으로 진입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서 우리는 어떤 감격과 사명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장을 힘차게 열면서 새 천년을 좀더 인간적이고 평등하며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경험, 헌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엄청난 속도와 깊이, 폭의 변화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학사회는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어떤 유형의 지식을 창출하여 사회에 공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대학사회는 진리 탐구와 학술 연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이념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사회에 부단히 제공함으로써 민주화·근대화·선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은 기존의 사명을 잃고 정체성의 위기, 경쟁력의 위기, 전문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대학 무용론, 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좀더 접허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 이룩한 대학의 성취와 결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자기 반성을 통해, 새 시대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은 지식기반사회이며, 지식정보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은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대학이 대량생산체제에 필요한 표준기술과 분화된 특정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에 열중해 왔다면, 21세기 대학은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해내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대학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발을 통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큰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식을 인간적인 진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동체적 헌신의 정신을 지닌 인재, 삶의 깊이를 통해 공존공영하는 정신으로 학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대학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전문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상의 인문교육과 기초교육 전당으로서의 본래적 사명에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에는 다양한 담론과 가치들이 통합되는 통합 문명의 패러다임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경쟁 논리가 아니라 관용과 연대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도 지난 세기의 다양하면서도 불완전했던 사상적·이념적 틀을 녹여 좀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과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대학 사회는 긴밀한 협조와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변화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교육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적 요소로 인식하고 교육개혁에 집중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도적 대학들은 지식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소수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약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특성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사회도 각각의 대학이 지닌 강점,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때 새로운 발전의 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천년의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요청받고 있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한다면 대학은 더 큰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힘으로 삼는 과감한 도전정신과 패기로서 새 천년 인류의 새 문명을 이루는 데 대학사회는 보다 핵심적이고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